

「歸去來兮辭」의 주제 호응구의 형성과 唐宋 시가에의 영향*

이현우**

— 목 차 —

1. 서론
2. 「歸去來兮辭」의 주제 관련 호응구
3. 호응구의 형성과 변용
 - 1) 호응구의 형성 과정
 - (1) 「歸去來兮」의 연원
 - (2) 「已矣乎」의 연원
 - 2) 의미와 풍격의 관계적 변용
4. 唐宋 시가에의 영향
 - 1) 「歸去來兮」의 영향
 - 2) 호응구의 영향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歸去來兮辭」의 주제 관련 호응구의 형성과 唐宋代 시가에의 영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歸去來兮辭」에서 주제 호응구인 「歸去來兮」와 「已矣乎」는 先秦 시기의 『論語』 등 산문과 『楚辭』 등 운문을 수용하여 형성되었다. 그 중 「歸去來兮」는 주제를 함축한 표현이고 「已矣乎」는 「亂辭」에 해당되어 마무리에 관여하는 역할을 하는데 양자는 수미 호응 관계에 있다. 의미상으로 「歸去來兮」는 「歸」에 중점이 놓여 상황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되며 「已矣乎」는 본래 「끝나다」라는 절망의 의미에서 「그

* 이 논문은 2022년도 경동대학교 교비연구비로 연구되었음.

** 경동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만두다'라는 달관의 의미로 변용되었다.

‘歸去來兮’와 ‘已矣乎’의 호응구는 唐宋代에 문학 언어로서 辭 이외에 詩, 詞 등으로 사용 범위가 확장되었고 和陶辭에도 영향을 미쳤다. 주로 작품에서 호응구의 표현이 같이 쓰이거나 어느 하나가 단독으로 쓰이는 양상을 보이는데 작가가 관직에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거나 불우한 처지에 놓였을 때 빈번히 사용함은 물론, 기타 상황에서도 상투적으로 ‘歸去來兮’와 ‘已矣乎’를 원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키워드: 陶淵明, 「歸去來兮辭」, 歸去來兮, 已矣乎, 호응구, 唐宋 시가, 영향

1. 서론

陶淵明의 「歸去來兮辭」는 중국문학사상 천고의 명편으로 후세 문학에의 영향력이 매우 큰 작품이라는 점에 異論이 없을 것이다. 중국은 물론 한자문화권 지식인들의 공감 속에 수많은 和歸去來兮辭가 창작되었으며 작가들 중에는 陶淵明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오늘날에도 「歸去來兮辭」는 누구나 한번쯤 떠올리며 자연에서의 유유자적하는 일상을 꿈꾸어 볼 정도로 현대인에게 친근한 작품이기도 하다.

어떤 시대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특징짓는 정신적인 문화를 시대정신이라고 규정한다면 문학에는 그 시대정신이 투영되기 마련이며 「歸去來兮辭」 역시 陶淵明을 둘러싼 시대정신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작가와 작품의 명성과 달리 아직 陶淵明의 삶은 물론 그의 작품에 대하여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향후 기존 연구의 종합과 함께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고는 「歸去來兮辭」를 대상으로 주제 관련 호응구와 그 영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호응구는 陶淵明이 주제를 독자에게 강조하기 위해 강구한 표현으로 후대에 영향을 주어 습용하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歸去來兮辭」에서 주제 관련 호응구의 연원 및 의미상의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하고 아울러 호응구가 후대에 어떻게 수용되는지 그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歸去來兮辭」의 창작과 관련한 전대의 수용적 측면과 후대에의 영향 관계 등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작품 이해의 차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작품이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문체와 문학 언어의 차원에서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 문학사 전체를 통시적으로 망라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대적 범위는 唐宋代로 좁히고 용례도 주요한 몇 가지를 들어 「歸去來兮辭」의 영향과 관련한 문학적 경향을 가늠하고자 한다.

陶淵明은 『詩品』에서 中品으로 평가되었듯이 六朝 시기에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唐宋代를 거치면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그러한 평가는 지속되게 된다. 따라서 唐宋代가 陶淵明의 영향력으로 그의 문학사적 위상이 확고해진 주요 시기인 만큼 주로 시대별 대표 운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歸去來兮辭」의 주제 관련 호응구

먼저 주제 관련 표현을 살펴보기 위하여 「歸去來兮辭」¹⁾의 본문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요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제1 단락: 歸去來兮~恨晨光之熹微(귀거래의 심경과 귀향길)
- 제2 단락: 乃瞻衡宇~撫孤松而盤桓(귀향 후의 정경과 일상의 상념)
- 제3 단락: 歸去來兮~感吾生之行休(은일과 전원생활의 즐거움)
- 제4 단락: 已矣乎~樂夫天命復奚疑(자연에의 순응과 삶의 달관)

1) 본고는 [晉] 陶淵明 著, 陶澍 集注, 『陶靖節集注』(臺北: 世界書局, 1974)를 저본으로 삼는다. 「歸去來兮辭」는 78-79쪽.

단락은 陶淵明 스스로가 換韻에 의해서 내용을 구분하고 있으며 4단 구성으로 나눈 것은 그에 따른 것이다. 「歸去來兮辭」는 서사적 수법을 활용하여 각 단락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귀가 전부터 귀가 후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제1 단락은 귀향 길에 오른 상황이며 제2 단락부터 제4 단락까지는 귀가 이후의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전 단락에 걸친 주제는 陶淵明 스스로 序에서 밝혔듯이 「歸去來兮」라는 제목에 함축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 중 ‘歸’는 「歸去來兮辭」의 주제를 담고 있는 핵심어이자 詩眼이라 할 수 있는데 ‘歸’의 여러 용법 중에서 ‘回歸’의 의미로 고정되어 辭의 표현으로 쓰인 것이 바로 ‘歸去來兮’인 것이다.

우선 본문 중 제1 단락과 제3 단락의 첫구는 주제를 반영한 ‘歸去來兮’를 각각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작가의 歸田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歸去來兮’는 해당 단락의 중심 문장인 동시에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2 단락의 요지는 귀향 후의 편안한 일상의 상념을 그린 것으로 예컨대 “倚南窗以寄傲”와 “審容膝之易安”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단락의 소주제로서 전체 주제와 관련한 관건 요소로 삼기에는 국부적이라고 하겠다.

제4 단락은 자연의 조화에 순응하여 천명을 즐기려는 심경을 담은 작품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已矣乎”로 시작하여 “樂夫天命復奚疑”로 끝나는 제4 단락에서 ‘乘化’, ‘樂天命’ 등은 단락의 소주제와 관련되는데 이것들을 포괄하여 마무리의 방향을 알리는 것이 ‘已矣乎’이다. 즉 단락 서두의 ‘已矣乎’가 ‘乘化’, ‘樂天命’ 등의 결말을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已矣乎’는 陶淵明의 심경을 드러내며 작품을 마무리하는 주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錢鍾書는 『管錐編』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결말의 “已矣乎”로 시작되는 한 단락은 ‘亂’이며 서두의 “歸去來兮” 한 단락과 수미 호응을 이룬다.²⁾

2) 錢鍾書, 『管錐編』, 北京: 中華書局, 1986, 1226쪽: “結處‘已矣乎’一節, 卽‘亂’也, 與發端歸

‘亂’이란 『楚辭』 「離騷」의 王逸 주에 의하면 “亂은 다스림이다. 詞의 뜻을 발하여 다스리고 그 요지를 총괄하는 것이다.”³⁾라고 하였고 蔣驥의 『山帶閣注楚辭』注에서는 “亂은 악곡의 마지막 장이다.”⁴⁾라 하였으며 洪興祖의 補注에서는 “亂이란 賦의 마지막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것이다.”⁵⁾라고 한 데에서 요지를 총괄하는 결말 부분이라고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歸去來兮辭」는 전술한 4단 구성 외에 3단 구성으로 구분할 수도 있는데 4단 구성의 제1, 제2 단락을 합쳐 하나로 하면 3단 구성으로 간략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단락은 2회 출현하는 ‘歸去來兮’와 ‘已矣乎’가 기점이 된다. 이렇게 본다면 ‘歸去來兮’(서두: 주장)~‘歸去來兮’(중간: 강조)~‘已矣乎’(결미: 마무리)의 호응 형식이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그런 까닭에 전체적으로 ‘歸去來兮’~‘歸去來兮’~‘已矣乎’로 이어지는 각 단락의 전개에서 ‘已矣乎’는 陶淵明의 사과의 과정을 귀결하는 핵심적이며 함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已矣乎’는 ‘歸去來兮’와 호응구를 이루며 작가의 신념 표출, 삶의 다짐 등의 마무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歸去來兮’는 「歸去來兮辭」의 주제 관련 핵심 표현으로 서두에서 주제를 나타내고 중간에서 재차 강조하며 ‘已矣乎’는 ‘歸去來兮’와 수미호응 관계를 이루어 결미에서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본고의 논점의 바탕이 될 「歸去來兮辭」의 주제 관련 호응구는 ‘歸去來兮’와 ‘已矣乎’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들이 陶淵明에 의해 어떻게 쓰여지고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去來兮一節, 首尾呼應.”

3) [先秦] 屈原 著, 洪興祖 補注,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1983, 47쪽: “亂, 理也. 所以發理詞指, 總撮其要也.”

4) [先秦] 屈原 著, 蔣驥 注, 『山帶閣注楚辭』, 臺北: 廣文書局, 卷1, 1971, 19쪽: “亂, 樂之卒章也.”

5) [先秦] 屈原 著, 洪興祖 補注,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1983, 47쪽: “亂者, 總理一賦之終.”

3. 호응구의 형성과 변용

이하 ‘歸去來兮’와 ‘已矣乎’의 호응구에 대해 陶淵明 이전의 문헌을 살펴보고 그 형성 과정과 변용의 양상 등을 탐색해보기로 한다.

1) 호응구의 형성 과정

(1) ‘歸去來兮’의 연원

回歸 의식과 관련한 조기의 문헌자료를 살펴보면 먼저 『論語』 「公治長」편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孔子께서 陳나라에 계실 때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 고향의 젊은이들이 뜻은 크나 일에는 치밀하지 못하여 길 모습만 번쩍이게 문채를 이룰 뿐이요, 그것을 마름질할 방법을 모르는구나.”라고 말씀하셨다.⁶⁾

또한 『詩經』 邶風의 「式微」⁷⁾에도 다음과 같이 회귀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式微式微, 胡不歸?	쇠미하고 쇠미한데 어찌 돌아가지 않는가?
微君之故, 胡爲乎中露?	군주의 일이 아닌데 어찌 이슬 속에서 사는가?
.....

예로 들은 『論語』의 ‘歸與’와 『詩經』의 ‘歸’는 ‘歸’가 단독으로 출현하고 있고 원위치로 되돌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歸’는 방향성으로 본다면

6) [先秦] 朱熹 集注, 『四書章句集注·論語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3, 81쪽: “子在陳, 曰: ‘歸與! 歸與!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 ”

7) [先秦] 朱熹 注, 『詩集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22쪽.

‘돌아가다’와 ‘돌아오다’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용례가 ‘歸去來兮’의 연원이란 보기에 다소 거리가 있으나 『論語』의 “歸與”는 「歸去來兮辭」 서문의 “歸與之情”, 『詩經』의 “胡不歸”는 「歸去來兮辭」 본문의 “田園將蕪, 胡不歸”에 나타난 바와 같이 陶淵明의 원용을 통하여 그 영향 관계를 엿볼 수 있다. 陶淵明은 사상적 기반으로 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작품에서 『論語』, 『詩經』 등의 진고를 빈번히 사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孟子』 「盡心」下에는 『論語』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다음과 같이 보인다.

만장이 문기를 “공자께서 진나라에 계시면서 ‘어찌 돌아가지 않겠는가! 우리 고을의 선비들은 뜻이 크고 대범하여 진취적이면서도 그 처음을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께서 진 나라에 계시면서 어찌 노나라의 뜻이 큰 선비를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하였다.⁸⁾

『孟子』에서는 『論語』의 ‘歸與’가 ‘歸乎來’로 바뀌어 보다 구체적으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歸乎來’는 의미상으로 ‘돌아오다’가 아닌 ‘돌아가다’를 나타내는 것이다. 관련하여 『戰國策』 「齊策」4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제나라에 풍훤이라는 사람이 있었다.……풍훤은 기둥에 기대어 칼을 두드리며 읊조리기를 “장검아 돌아가자! 식사 때 생선 하나 없구나.”라고 하였다.……얼마 후 풍훤이 다시 칼을 두드리며 읊조리기를 “장검아 돌아가자. 외출하려 해도 수레가 없구나.”라고 하였다.……얼마 후 다시 칼을 두드리며 읊조리기를 “장검아 돌아가자. 가족을 부양할 집이 없구나.”라고 하였다.……⁹⁾

8) [先秦] 朱熹 集注, 『四書章句集注·孟子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3, 374쪽: “萬章問曰: 孔子在陳曰: ‘盍歸乎來! 吾黨之士狂簡, 進取, 不忘其初.’ 孔子在陳, 何思魯之狂士?”

9) [漢] 劉向 編, 高誘 注, 『戰國策』, 新化: 三味書室, 1902, 卷第11, 齊四: “齊人有馮諼者……倚柱彈其劍, 歌曰: ‘長鋏歸來乎! 食無魚.’……居有頃, 復彈其劍, 歌曰: ‘長鋏歸來乎! 出無車’

여기에서는 『孟子』의 ‘歸乎來’가 아닌 ‘歸來乎’로 출현하며 의미의 핵심을 이루는 ‘歸’에 ‘來’가 직접 결합된 형태로 ‘歸去來’의 기원을 엿볼 수 있는 구조이다. 의미상으로 ‘歸來乎’는 ‘돌아오다’가 아닌 ‘돌아가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辭賦 작품에서 ‘歸去來兮’와 관련한 용례를 찾아보자. 『楚辭』 「招魂」¹⁰⁾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
魂兮歸來!	혼이여 돌아오라!
.....
歸來兮! 不可以託些.	돌아오라! 의탁할 곳이 아니로다.
.....

주지하듯이 屈原은 자신의 실의와 울분을 토로하기 위해 辭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노래하여 辭賦 문학의 비조가 되었다. 「招魂」에서는 ‘歸來乎’가 아닌 ‘歸來兮’의 형태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歸去來兮’와 유사한 조기의 용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그 의미는 「招魂」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돌아오다’로 봐야 할 것이다. 陶淵明에 앞서 西晉의 潘岳도 「招魂」의 영향을 받아 「秋興賦」¹¹⁾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
且斂衽以歸來兮,	옷깃을 걷어 올리고 돌아가리라,

10) ‘.....復彈其劍鋏, 歌曰: ‘長鋏歸來乎! 無以爲家.’.....’ 『史記』 卷75, 「孟嘗君列傳」 第15에도 요약되어 실려 있는데 『戰國策』의 ‘馮諼’을 ‘馮驩’으로 표기하고 있다. [漢] 司馬遷著,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2359쪽.

기타, 『北堂書鈔』 卷第106 「樂部」 2에도 『戰國策』의 기록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唐] 虞世南 編, 陳禹謨 校刊本, 『北堂書鈔』 卷第106, 7쪽, 「馮煖彈鋏」 條: “『戰國策』云: 齊人有馮煖屬孟嘗君, 願寄食門下. 孟嘗君授之. 居有頃, 倚柱彈其劍歌曰: ‘長鋏歸來乎! 食無魚.’云云.”

10) [先秦] 屈原 著, 洪興祖 補注,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1983, 198-199쪽.

11) [梁] 蕭統 編, 『文選』 (卷13),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589쪽.

탄식한 것이다.”¹³⁾라고 풀이하였다. 또한 『論語』 「衛靈公」 편에 “공자가 이르기를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여색을 좋아하듯 덕을 좋아하는 이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였다.”라고 보이는데 朱熹는 역시 “‘已矣乎’는 끝내 볼 수 없을 것을 탄식한 것이다.”¹⁴⁾라고 풀이하였다. 공자가 말한 ‘已矣乎’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실망감과 탄식의 어조를 담고 있는 것이다.

「離騷」¹⁵⁾에는 다음과 같은 용례를 볼 수 있다.

.....
亂曰, 已矣哉.	종결하여 이르노니, 다 끝이로구나.
國無人莫我知兮,	나라에 사람 없어 나를 알아줄 이 없으니,
又何懷乎故都.	옛 도읍을 생각해서 또 무엇하리.
.....

또한 「惜誓」¹⁶⁾에도 다음과 같이 보인다.

.....
已矣哉.	끝났구나.
獨不見夫鸞鳳之高翔兮,	봉황새가 높이 날아다니는 것은 보이지 않고
乃集大皇之河壑.	황폐한 들만에 모여 있네.
.....

이상의 「離騷」와 「惜誓」는 둘 다 ‘已矣乎’가 아닌 ‘已矣哉’로 쓰여 표기상 ‘乎’와 ‘哉’의 차이점을 보인다. 洪興祖는 「離騷」 ‘已矣哉’의 주에서 “『論語』에 이르기를, 어쩔 수가 없구나. 나는 덕을 좋아하기를 여색을 좋아하듯하는 이를 보지 못하였다. 孔安國은 ‘已矣’는 글머리의 탄사라고 하였다

13) [先秦] 朱熹 集注, 『四書章句集注·論語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3, 83쪽: “子曰: ‘已矣乎! 吾未見能見其過而內自訟者也.’ 已矣乎者, 恐其終不得見而歎之也.”

14) [先秦] 朱熹 集注, 『四書章句集注·論語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3, 164쪽: “子曰: ‘已矣乎!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 已矣乎, 歎其終不得而見也.”

15) [先秦] 屈原 著, 洪興祖 補注,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1983, 47쪽.

16) [先秦] 屈原 著, 洪興祖 補注,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1983, 230쪽.

.”¹⁷⁾라고 인용하고 있다. 洪興祖가 ‘已矣哉’를 풀이하며 ‘已矣乎’와 ‘已矣’의 용례를 동시에 들고 있는 것에서 ‘已矣哉’와 큰 차이 없이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王逸도 「離騷」의 注에서 “已矣, 絕望之詞”¹⁸⁾라고 하여 ‘哉’를 제외하고 언급하고 있고 ‘절망의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賈誼는 「弔屈原賦」에서 “종결하여 이르노니, 끝났구나. 나лага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 홀로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하겠는가?”¹⁹⁾라고 하였는데 역시 ‘已矣’의 용례가 보인다. 『史記』의 「集解」에는 ‘訊’은 알리다의 의미로 「離騷」 下章의 ‘亂辭’에 해당한다²⁰⁾고 하여 ‘訊’이 ‘亂’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의 자료로 볼 때 「歸去來兮辭」에 보이는 ‘已矣乎’는 陶淵明 이전에 동일한 형태가 나타나므로 陶淵明이 『論語』와 『楚辭』, 漢賦 등을 기반으로 「歸去來兮辭」의 ‘亂辭’로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의 「詠貧士」, 「有會而作」에서도 유사한 용례가 보인다.²¹⁾

결국 ‘歸去來兮’와 ‘已矣乎’는 문학 언어적 측면에서 볼 때 陶淵明의 단독 창작의 결과라기보다는 역대의 작품을 수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歸去來兮辭」의 창작에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2) 의미와 풍격의 관계적 변용

17) [先秦] 屈原 著, 洪興祖 補注,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1983, 47쪽: “『論語』曰: ‘已矣乎. 吾未見好德如好色者也.’ 孔安國曰: ‘已矣, 發端歎辭.’ ”

18) [先秦] 屈原 著, 洪興祖 補注,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1983, 47쪽.

19) [漢] 司馬遷, 『史記』卷84 「屈原賈生列傳」第24, 北京: 中華書局, 1982, 2494-2495쪽: “訊曰: 已矣, 國其莫我知, 獨埋鬱兮其誰語?” [注2] “「索隱」『漢書』作壹鬱, 意亦通.”

20) [漢] 司馬遷, 『史記』卷84 「屈原賈生列傳」第24, 北京: 中華書局, 1982, 2495쪽: [注1] “「集解」李奇曰: ‘訊, 告也.’ 張晏曰: ‘訊, 『離騷』下章亂辭也.’ ”

21) [晉] 陶淵明 著, 陶澍 集注, 『陶靖節集注』, 臺北: 世界書局, 1974, 60쪽: 「詠貧士」 “……知音苟不存, 已矣何所悲?(……알아주는 사람 정말 없다면, 두어라, 무얼 슬퍼하겠는가?)” 52쪽: 「有會而作」 “……餒也已矣夫, 在昔余多師.(……굶주린들 그뿐이니, 옛날에 나의 스승 많았다네.)”

앞서 ‘歸去來兮’와 ‘已矣乎’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각각의 연원을 바탕으로 陶淵明은 「歸去來兮辭」에서 호응구로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歸去來兮辭」에서 주제와 관련한 호응구는 왜 이 둘의 조합으로 형성되었는가?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문체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歸去來兮’와 ‘已矣乎’는 둘 다 先秦의 산문과 운문에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작품의 구현은 ‘辭’의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陶淵明은 왜 시가 아닌 辭의 형식을 원용하게 된 것일까? 松原朗은 “辭賦의 운율은 자연발생적 성격을 가진다. …… 楚辭는 6언, 7언을 위주로 하면서도 정형예의 구속은 느슨하다.”²²⁾고 설명한다. 이런 까닭에 陶淵明은 시보다는 형식이 자유롭고 규칙이 적은 辭로 ‘歸去來’의 심경을 읊게 된 것이며 엄격한 자수율과 함께 동어 반복을 회피하는 시와 달리 辭는 그런 제약이 없으므로 ‘歸去來兮’를 반복하여 사용 가능했던 것이다. 실제로 「歸去來兮辭」는 총 60개 구 중 6언(38개)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3언(1개), 4언(12개), 5언(2개), 7언(6개), 8언(1개)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지어졌다. 아울러 「招魂」에서 ‘歸來兮’를 반복하는 수사법에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이 높다.

「歸去來兮辭」의 형식은 『楚辭』에서 나왔으나 풍격은 사뭇 달라 실의에 차 울분을 토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오히려 ‘歸去來’에의 결의와 만족스러운 전원생활의 심경을 희망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처럼 陶淵明 문학이 화려한 수사를 바탕으로 상심과 절망의 표출보다는 소박하고 절제된 표현으로 삶의 달관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楚辭』와 대비되는 풍격상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陶淵明은 기존의 ‘歸乎來’, ‘歸來乎’, ‘歸來兮’ 등으로부터 ‘歸去來兮’라는 辭語로 변용했으나 그 용법에 대해 학계의 견해는 다양하다.²³⁾ 제설의 차이는

22) 松原朗, 「中國古典詩의 音數律—對偶性と人爲性—」, 『アジア民族文化研究』 7卷, 2008, 166-167쪽: “辭賦의 韻律は、自然發生的性格を持つものである。……楚辭は、六言・七言を主としつつも、定型への拘束は緩やかである。”

23) ‘歸去來兮’의 ‘來’ 등에 대해서는 다음 주역서, 논문 등을 참고 바람. 遯欽立 校注, 『陶淵

‘歸乎來’, ‘歸來乎’ 등과 달리 ‘歸去來兮’는 ‘去’와 ‘來’가 같이 등장한 데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만 제설 중 어느 설을 채택하든 관점은 다소 다를지라도 ‘歸去來兮’가 나타내는 陶淵明의 창작 의도에 본질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문학성이 왜곡되는 점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 「歸去來兮辭」 서문의 “眷然有歸與之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제어로서의 ‘歸去來兮’는 ‘歸’에 중점이 놓여 ‘돌아 가다’와 ‘돌아 오다’를 모두 내포하는 글자로서 상황에 따라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管見하는 바로는 역대의 문헌에서 그 의미의 불명확성에 대해 의의가 제기된 언설을 찾아보기 어려운데 ‘歸去來兮’에 대해 언어의 규칙성을 따져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독자는 하나의 관용구처럼 이해해온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이성보다 감성으로 이해하는 해독법이 작용하였던 것이며 해석에 있어서 상황에 따라 통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이다. 비록 해석상의 이견은 있으나 「歸去來兮辭」의 영향력은 시대를 거듭해도 지속적으로 매우 높았다는 점은 독자는 ‘歸去來兮’를 형식과 의미 상에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문체로서의 ‘辭’에는 亂辭를 포함하는데 작품의 종결 부분이므로 자연스럽게 주제와 관련을 가지게 되며 『楚辭』에서는 ‘已矣乎’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작품이었다. 「歸去來兮辭」의 호응구는 이러한 배경 속에 형성된 것으로 3, 4언의 짧고 핵심적인 두 표현은 독자에게 작품의 취지를 명료하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已矣乎’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論語』 「公冶長」편의 ‘已矣乎’와 「離騷」의 ‘已矣哉’ 등을 예시하였는데 朱熹(“已矣乎者, 恐其終不得見而歎之也.”)

明集』, 北京: 中華書局, 1979, 159쪽: “來、兮, 並歎詞, 以示興奮喜悅” 王瑤, 『陶淵明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6, 111쪽: “來, 語助詞, 無義” 龔斌 校箋, 『陶淵明集校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394쪽: “來, 語助詞, 無義” 魏正申, 『陶淵明集譯注』, 北京: 文津出版社, 1994: “來、兮, 都是語助詞, 無實義” 周策縱, 「說“來”與“歸去來”」, 香港中國語文學會編, 『王力先生紀念論文集』(中文分冊), 香港: 三聯書店香港分店, 1987, 79쪽: “‘歸去來兮’既已有‘兮’字, 則‘來’字似非嘆詞.” 周策縱의 논문은 ‘歸去來’에 관하여 상세한 자료와 논증을 제공한다.

와 王逸(“已矣, 絕望之詞”), 洪興祖(“孔安國曰, 發端歎辭”)의 주를 종합해본다면 바라던 것을 이루지 못해 절망하는 탄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歸去來兮辭」중의 ‘已矣乎’를 현대 중국의 주역서는 대부분 ‘算了吧’²⁴⁾로 번역하고 있고 그중 魏正申은 ‘已’를 ‘止’로 풀이하여 ‘그만두다’의 의미로 보고 있다. 기타 中英 대조본에서도 중국어는 ‘罷了罷了’로 영어는 ‘No more of my grudges’로²⁵⁾ 번역하고 있어 기본적으로 ‘算了吧’와 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다. 한국어로는 절망의 탄사로서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미 틀렸다.’²⁶⁾라고 번역하는 관점이 있으며 ‘已’는 그침의 뜻으로서 ‘아서라’²⁷⁾, ‘그만두어라’²⁸⁾로 번역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그러나 “已矣乎”는 단독으로 그 자체를 고려할 것이 아니고 호응구로서의 ‘歸去來兮’와 함께 논의되어야 그 의미와 풍격을 바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陶淵明은 ‘歸去來兮’와 ‘已矣乎’라는 호응 관계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한 것일까? 王逸의 주와 같이 ‘絕望’의 의미라면 「歸去來兮辭」는 관직을 그만두고 歸田隱逸의 희망을 실천하는 제1 단락에서 제3 단락까지가 전개된 이후, 삶에 대한 달관과 함께 긍정적인 마무리 단락인 제4 단락으로의 연결은 어색하고 불안정한 결미가 되고 말 것이다.

우선 형식면에서 ‘已矣乎’는 ‘亂辭’로서 결미를 이끄는 마무리 단계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제와 연결 지어 마무리 단락임을 독자에게 알리는 데에 중점이 놓인 말이므로 「歸去來兮辭」의 전개상 절망적인 언어 사용은 위화감을 조성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내용적으로 陶淵明의 작품 세계는 궁핍하고 고단한 삶일지라도 固窮의 절조를 지키며 관조와 달관의 자세를 보일지언정 절망과 자포자기는 찾아

24) 唐滿先 選注, 『陶淵明詩文選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113쪽. 劉繼才 譯釋, 『陶淵明詩文譯釋』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6, 263쪽. 魏正申 譯注, 『陶淵明集譯注』, 北京: 文津出版社, 1994, 162쪽.

25) 汪榕培 英譯, 熊治祁 今譯, 『陶淵明集』,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3, 246-247쪽.

26) 노태준 역, 『新譯 古文眞寶』, 서울: 홍신문화사, 1982, 254-255쪽.

27) 김학주 역, 『陶淵明』, 서울: 명문당, 2013, 277쪽.

28) 이장우 등 역, 『고문진보 후집』, 서울: 을유문화사, 2003, 160쪽.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 뜻과 정서는 절망적이고 체념적이라기보다는 담담하고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기에 수미쌍관되는 형식에서 희망(歸去來兮)→절망(已矣乎)의 모순된 호응보다 희망(歸去來兮)→달관(已矣乎)의 순리적 호응이 정서적으로 더 많은 독자에게 감동을 주고 지지를 받을 것임은 인지상정인 것이다. 이런 연유로 마무리에 해당하는 ‘亂辭’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되 체념적인 ‘끝장이다’ 보다는 ‘두어라’라는 달관의 의미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已矣乎’가 무엇을 그만 두는가에 대해서는 이 말이 문장의 마무리와 함께 무엇인가의 집착에서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작가의 인생관, 가치관 등과 관계가 깊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관직에의 길, 세속적인 부귀, 인간적인 물욕 등 陶淵明이 「歸園田居」 其一에서 말한 “誤落塵網中(잘못하여 세속의 그물 속에 떨어졌네)”으로 생겨나는 모든 것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陶淵明이 「歸去來兮辭」를 지음에 『楚辭』를 의식하고 있었지만 ‘歸去來兮’와 ‘已矣乎’는 호응 관계 속에서 그 의미와 풍격을 변용함으로써 이전과 다른 새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4. 唐宋 시가에의 영향

여기에서는 「歸去來兮辭」에서 ‘歸去來兮’와 ‘已矣乎’의 호응구가 唐宋 시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歸去來兮’의 영향

‘歸去來兮’는 「歸去來兮辭」의 주제어로 성립되었으나 그 이후 문체와 문학 언어 등 후대 문학에 미친 영향은 매우 큰 것이었다. 陶淵明 이후의 문인

들이 歸田 의식을 표출할 때에는 시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歸去來兮’가 습용되게 된다.

먼저 시의 경우를 살펴보자. 우선 『先秦漢魏晉南北朝詩』²⁹⁾에 근거하여 ‘歸去來(兮)’를 검색하면 다음 <표 1>의 통계를 얻을 수 있다.

이하, 통계에서 ‘歸去來兮’ 또는 ‘歸去來’만을 대상으로 하고 歸去, 歸來, 歸乎, 歸哉, 歸兮 등은 제외하였다. 그 이유로 陶淵明 이후의 ‘歸去來(兮)’는 그 언어적인 특징에서 「歸去來兮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나 歸去, 歸來 등은 陶淵明 이전부터 존재했으므로 ‘歸去來兮’에서 파생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표 1> 先秦漢魏晉南北朝詩의 ‘歸去來(兮)’ 관련 통계³⁰⁾

先秦詩	漢詩	魏詩	晉詩	宋詩	齊詩
0	0	0	2 (歸去來兮2)	0	0
梁詩	北魏詩	北齊詩	北周詩	陳詩	隋詩
4 (……歸去來4)	0	0	0	1 (歸去來)	1 (歸去來)

이상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陶淵明 이전에 ‘歸去來(兮)’ 관련 용례는 보이지 않으며 晉代에는 陶淵明을 제외하고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陶淵明 이후에도 隋代까지는 6례에 그치고 있어 문학 언어로 그다지 폭넓게 정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唐代에 들어서는 그 사용례가 점차 증가하게 되는데 주요 시인 중의 예에 대하여 唐詩 색인³¹⁾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은

29) 遼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 北京: 中華書局, 1983.

30) (歸去來)는 독립된 구로 사용된 형식이며 (……歸去來)는 다른 성분과 조합된 형식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그 예의 수를 가리키는데 복수의 경우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 구분하기 위함이다. 이하 <표 2>, <표 3>도 동일. 본 통계는 디지털 문헌자료의 검색 기능으로 추출한 것이다.

31) 陳抗 등 編著, 『全唐詩索引』 王勃·楊炯·盧照隣·駱賓王 卷(1992) / 孟浩然 卷(1992) / 王維 卷(1992) / 高適 卷(1994) / 岑參 卷(1992) / 韓愈 卷(1992) / 劉禹錫 卷(1992) / 李

〈표 3〉 宋詞의 '歸去來(兮)' 관련 사용례³⁶⁾

柳永	蘇軾	黃庭堅	晁補之	葉夢得	趙鼎	高登	李流謙
4 (歸去來 4)	6 (歸去來2 歸去來 兮4)	3 (歸去來 3)	2 (歸去來1 歸去來 兮1)	1 (歸去來 兮)	2 (歸去來2)	1 (歸去來 兮)	1 (歸去來 兮)
辛棄疾	趙善括	洪咨夔	葛長庚	劉克莊	吳潛	李曾伯	陳人杰
5 (歸去來 兮5)	1 (歸去來 兮)	1 (歸去來 兮)	1 (歸去來 兮)	2 (歸去來2)	2 (歸去來1 歸去來 兮1)	3 (歸去來2 歸去來 兮1)	1 (歸去來 兮)

이상 宋詞의 용례를 보면 唐代 이전과 唐代를 뛰어넘어 매우 폭 넓게 쓰여지고 있어 그 영향력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와 달리 '歸去來兮'를 독립된 구로 사용하는 점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곧 詞의 표면적인 형식의 자유로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작가 중 柳永, 蘇軾, 黃庭堅, 辛棄疾 등 詞人們이 '歸去來(兮)'를 3회 이상 詞語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문인들도 전대의 사대부들과 같이 관직에의 실의에 빠지거나 불우한 처지에 놓였을 때 陶淵明과 「歸去來兮辭」에 마음을 기탁한 결과로 풀이된다.

용례를 들면 蘇軾의 詞 중 「滿庭芳」³⁷⁾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歸去來兮,	돌아가리라,
吾歸何處,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
萬里家在岷峨.	만리 밖의 집은 민산과 아산에 있네.
.....

蘇軾이 정치적으로 불우한 시기를 보내면서 지었던 것으로 '歸去來兮'가 등장하는 것에서 그가 처한 현실적 곤경과 심적 회귀를 엿볼 수 있다.

36) 본 통계는 일부 주요 작가의 작품에 대하여 디지털 문헌자료에서 검색 기능으로 추출한 것으로 문학적 경향을 보기 위한 참고자료이다.

37) [宋] 蘇軾 著, 鄒同慶, 王宗堂 校註, 『蘇軾詞編年校註』, 北京: 中華書局, 2002, 506쪽.

辛棄疾의 「一剪梅·游蔣山, 呈葉丞相(蔣山에서 노닐며 葉丞相에게 지어주다.)」³⁸⁾에 다음과 같은 용례가 보인다.

獨立蒼茫醉不歸。	홀로 서서 창망하니 취하여 돌아가지 않네.
日暮天寒,	해는 지고 날은 찬데,
歸去來兮。	돌아가자꾸나.
探梅踏雪幾何時?	매화 찾아 눈 밟은지 언제인가?
.....

辛棄疾의 ‘歸去來兮’는 歸田을 의미하기보다는 蔣山에서 노닐다 거처로 돌아가자는 표현이다. 그러나 이는 표면적인 것으로 역대 문인들이 그러했듯이 처경에 따라 은연중 歸田을 염두에 두고 그 뜻을 연상하게 하는 중층적 표현으로서의 작용을 하였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歸去來兮’는 陶淵明 이후에 호응구인 ‘已矣乎’ 없이 단독으로도 원용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며 그 용례 또한 점차 증가하여 宋代에 이르러서는 폭 넓게 습용된다. 특히 歸田 등을 노래할 때에 주로 ‘歸去來兮’를 사용하는 작풍이 형성된다. 詞의 경우 ‘歸去來兮’를 독립된 구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형식상의 제약이 있을지라도 5, 7언 시와는 달리 3언(歸去來), 4언(歸去來兮) 등 詞牌의 형식에 맞춰 填詞할 수 있는 음절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已矣乎’는 단독의 사용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辭와 달리 시나 詞에서는 ‘亂辭’를 상용하지 않았으며 특히 시에서는 자수율의 제한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본고의 조사 대상에서는 제외했으나 후대의 시문에서 ‘歸去來兮’를 사용하지 않고 歸去, 歸來, 歸乎, 歸哉, 歸兮 등의 관련 표현을 사용한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며 그것들도 그 이면에 있어서는 「歸去來兮辭」를 직접적으로 의식하거나 상당 부분 관련이 있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歸去來兮辭」가 가지는 영향력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인

38) [宋] 辛棄疾 著, 鄧廣銘 箋注, 『稼軒詞編年箋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28쪽.

것이다.

2) 호응구의 영향

‘已矣乎’가 독립된 구로 시나 詞에서 사용된 예는 흔하지 않지만 辭賦 문학에서는 그 사용례가 두드러진다. 다만 ‘已矣乎’가 단독으로 사용된 경우 陶淵明 이전의 용례가 있으므로 형태를 보고 「歸去來兮辭」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已矣乎’의 단독 사용례가 「歸去來兮辭」의 영향 관계에 있는지는 그 의미가 절망이 아닌 달관을 나타내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가능하다. ‘已矣乎’는 『楚辭』 등에서의 절망의 의미가 陶淵明에 의해 ‘止(그만두다)’를 나타내는 달관의 의미로 변용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歸去來’와 ‘已矣乎’의 호응 관계에서 영향을 미친 용례를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시의 용례를 들면, 駱賓王의 「上吏部侍郎帝京篇(吏部侍郎에게 帝京篇을 올리다)」³⁹⁾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
已矣哉, 歸去來.	두어라, 돌아가리라.
馬卿辭蜀多文藻,	蜀에서 먼직된 司馬相如是 글재주가 많았고
揚雄仕漢乏良媒.	漢에 벼슬한 揚雄은 그를 천거하는 이 없었네.
.....

이 시는 歌行體 雜言古詩로서 駱賓王은 이례적으로 5, 7언구가 기반인 이 시에서 ‘已矣哉’와 ‘歸去來’를 연결시켜 노래하고 있다. 이는 본래 「歸去來兮辭」에서 호응 관계인 ‘歸去來兮’와 ‘已矣乎’가 辭라는 문체를 벗어나 시에 원용된 사례를 보여준다. 初唐의 雜言古詩인만큼 6언체를 혼용하고 있고 호응 관계가 한 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39) [唐] 駱賓王 著, [清] 陳熙晉 箋注, 『略臨海集箋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14쪽.

李白은 「穎陽別元丹丘之淮陽(穎陽에서 淮陽으로 가는 元丹丘와 헤어지며)」⁴⁰⁾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	……
前志庶不易,	전에 품은 뜻 바꾸지 않고,
遠途期所遵.	멀리서라도 지켜내길 바라네.
已矣歸去來,	두어라, 이제 돌아가리니,
白雲飛天津.	흰구름 天津橋에 떠가네.

이 역시 호응 관계가 한 구에 나타나는 용례로 명확히 「歸去來兮辭」의 영향 범위에 있는 시라고 할 수 있다. 李白은 ‘已矣’와 ‘歸去來’를 같이 연용하고 「歸去來兮辭」의 핵심적인 시상을 1구 5자에 함축하여 자신의 뜻을 기탁한 것이다.

駱賓王과 李白의 공통점은 ‘已矣’ 관련 표현을 후미에 넣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결미를 이루는 ‘亂辭’의 역할을 의식하고 시에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나 그 배열에 있어서는 「歸去來兮辭」와 달리 ‘已矣’를 ‘歸去來’ 앞에 놓고 있으며 호응구의 생략형을 취하고 있는데 의미와 음수율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宋代 陸游의 「閒遊」⁴¹⁾에는 다음과 같은 구가 보인다.

大冠長劍已焉哉,	대관과 장검 내려놓고,
短褐秃巾歸去來!	갈색 두건으로 갈아 쓰고 돌아가리!
……	……

여기에서 ‘已焉哉’⁴²⁾와 ‘歸去來’가 호응을 이루고 있는데 독립구를 이루지 않고 각 구의 술어로 쓰인 점이 다르나 ‘두어라’ 라는 용법에서 확장된 것으

40) [唐] 李白 著, [清] 王琦 注,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717쪽.

41) [宋] 陸游 著, 錢仲聯 校注 『劍南詩稿校注』(卷68),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3830쪽.

42) 『詩經』 「北門」: “出自北門, 憂心殷殷, 終窶且貧, 莫知我艱. 已焉哉! 天實爲之, 謂之何哉!……”에 “已焉哉”가 보이는데 “已矣乎”와 같은 용법이다.

로 그 意境은 「歸去來兮辭」를 원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宋代의 郭祥正은 「將歸行」⁴³⁾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君不見	그대는 보지 않았는가,
日暮途窮逆行客,	날 저물고 갈 곳 없는 행자를,
一餉榮華速誅殛.	부귀영화를 누리도 바로 죽임을 당하네.
又不見	또한 보지 않았는가,
都市朝衣就劔人,	시중에 관복을 입고 칼을 든 사람을,
誰道忠言能殺身.	충언으로 죽음을 당하리라 누가 말했는가.
休休休, 歸去來.	두어라, 두어라, 두어라, 돌아가자.
.....

‘已矣乎’는 다른 표현으로 대체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休休休’는 ‘已矣乎’의 대체 표현으로 ‘歸去來’와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 두 표현의 호응 관계는 「將歸行」이라는 제목에서도 연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 시는 비정한 관직의 현실에 실의를 느껴 歸去來하고자 하는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休休休’라는 문자적 표현은 달라도 그 意境은 ‘已矣乎’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⁴⁴⁾

宋代에 들어와 「歸去來兮辭」는 蘇軾에 의해 시작된 和陶辭 창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辭가 詩, 詞 등으로의 문체상의 확대와 함께 전적으로 陶淵明의 「歸去來兮辭」에 和韻하여 和陶辭를 창작하는 새로운 영역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蘇軾의 「和陶歸去來兮辭」⁴⁵⁾에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

歸去來兮, 돌아가리라,

43) [宋] 郭祥正, 『青山集』, 欽定四庫全書本 卷二 7-8쪽.

44) 『說文解字』에 ‘休’는 “息止也”라고 釋義하고 있으며 終止의 용법이 있다.

45) [宋] 蘇軾 著, [清] 馮應榴 輯注, 黃任軻 朱懷春 校點, 『蘇軾詩集合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2201쪽.

吾方南遷安得歸?	나는 지금 남쪽으로 유배가니 언제 돌아갈꼬?
.....
歸去來兮,	돌아가리라,
請終老於斯游.	여기에서 다 늙도록 노니리.
.....
已矣乎!	두어라!
吾生有命歸有時,	내 삶에 한계 있으니 돌아감에 때가 있는 법,
我初無行亦無留.	나는 본시 갈 곳 없고 머무를 곳도 없구나.
.....

蘇軾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불우함을 겪고 정신적으로 陶淵明을 흠모하였으며 陶淵明의 대부분의 작품에 和韻하여 시를 지었다. 특히 「歸去來兮辭」에 和韻하는 한편, 그 체례를 따라 ‘歸去來兮’와 ‘已矣乎’를 해당 단락의 서두에 습용하는 和陶辭의 전형을 확립한다. 즉 和韻 외에 다른 부분은 모두 표현이 바뀌어도 이 호응구는 그대로 습용하는 형식을 확립한 것이다. 호응구가 두드러지는 이러한 체제는 和陶辭의 성격상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蘇軾 이후에는 이 체제를 따르는 것이 하나의 문학 양식처럼 이어지게 된다.⁴⁶⁾

蘇軾을 따라 지은 張耒의 「和歸去來辭」⁴⁷⁾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46) 이 형식은 중국 외에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和歸去來辭」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고려 李仁老를 비롯하여 이후의 문인들도 이 체제를 답습하고 있다. 『東文選』 卷1, 1-2쪽, 李仁老, 「和歸去來辭」의 예: “歸去來兮, 陶潛昔歸吾亦歸.……歸去來兮, 問老聃之所遊.……已矣乎! 天地盈虛自有時.……(돌아가리라, 도잠이 옛날 돌아갔으니 나 역시 돌아가리.……돌아가리라, 노자가 노닌 곳을 물어보리.……두어라, 천지가 차고 빚이 스스로 때가 있도다.……)”

47) [宋] 張耒 著, 李逸安 等 點校, 『張耒集』, 北京: 中華書局, 1990, 62-63쪽. 張耒의 「和歸去來辭」의 序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子由先生示東坡公所和陶靖節「歸去來辭」及侍郎先生之作, 命之同賦, 耒輒自憫其仕之不偶, 又以弔東坡先生之亡, 終有以自廣也.(蘇軾 선생이 東坡公의 「和陶歸去來辭」와 시랑 선생의 작품을 보여주며 같은 사부를 지어 보라고 하였는데, 나는 스스로 관직의 불우함을 가엽게 여겼고 또 東坡 선생의 죽음을 애도함으로써 스스로 위로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 권유로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和陶辭가 점차 유행하는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던 듯하다.

歸去來兮, 行世不偶予曷歸?	돌아가리라, 처세함에 불우하니 내 어디로 돌아갈꼬?
歸去來兮, 吾悲夫斯人不返兮, 豈招仙聖與之游?	돌아가리라, 슬프도다, 백성은 돌아오지 아니하니, 어찌 신선과 성인을 불러 같이 노니리?
已矣乎! 萬物之作各其時, 吾獨與時而去留.	두어라! 만물의 지음은 각기 때가 있는 법, 나 홀로 때에 따라 가고 머무르리니.

和陶辭의 창작 동기는 대부분 작가의 불우, 陶淵明에 대한 존중 등과 관계가 있는데 張耒 또한 자신의 불우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시름을 蘇軾과 陶淵明에 투영하여 승화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앞서 든 2편의 和陶辭에서 보았듯이 和韻과 함께 주제 관련 호응구가 그대로 보존되는 특징을 갖는다. 和陶辭에서 호응구가 체재와 형식으로서 필수 요소가 된 것이다. 즉 「歸去來兮辭」에서 주제 호응구는 和陶辭에서 다른 표현으로 대체 불가능적인 것으로 역대로 양자를 주제 관련 핵심 표현으로 인식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歸去來兮’와 ‘已矣乎’의 호응관계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형식 면에서 시에서는 歸去來, 歸去, 歸來, 已矣 등으로 축약되어 구의 일부로 작용하며 영탄은 소멸되기도 한다. 반면 詞에서는 원형을 살려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시에서는 亂辭를 채택하는 사례가 흔하지 않으므로 ‘已矣乎’, ‘已矣哉’를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문체의 성격상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변용을 모색하게 되고 구의 일부분으로서 ‘……+ 歸去來/已矣(乎, 哉)’ 등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歸去來兮’는 ‘歸去’의 의미로 쓰였으나 상황에 따라 ‘歸來’의 의미로도 변용되었으며 ‘已矣乎’는 『楚辭』에서는 ‘끝장’이라는 절망의 亂辭이었으나 陶淵明이 ‘그만 두어라’라는 달관의 경지를 표현하였고 이후의 陶淵明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대부분 후자를 따르게 된다.

唐宋代에 ‘歸去來兮’ 관련 용례의 수적인 증가는 『詩品』에서 中品에 분류될 정도로 六朝 시기에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陶淵明의 위상이 높아지고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5. 결론

본고는 「歸去來兮辭」의 주제 표현 중 호응구인 ‘歸去來兮’와 ‘已矣乎’에 대하여 그 성립과 唐宋 시가에의 영향의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歸去來兮’와 ‘已矣乎’는 「歸去來兮辭」 중에서 수미 호응 관계에 있는 표현으로 ‘歸去來兮’는 주제를 함축한 辭語이며 ‘已矣乎’는 亂辭에 해당되어 전체의 마무리에 관여되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표현은 先秦 시기의 『論語』, 『楚辭』 등을 수용하여 성립되었으며 唐宋代에는 詩, 詞 등으로 문체를 확대하여 영향을 주었고 和陶辭의 창작에도 주요 체재로 작용하였다.

陶淵明이 시에 뛰어났음에도 辭의 형식으로 창작한 이유는 형식과 편폭의 제약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우며 동어 반복을 피하는 시와 달리 반복 강조와 영탄의 기법 등으로 심경을 읊조리기에 적합한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歸去來兮辭」에서 주제 표현의 호응구인 ‘歸去來兮’와 ‘已矣乎’는 陶淵明 이후 지속적으로 문학 언어로서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보인다.

양자의 성격으로 ‘歸去來兮’는 주제를 직접 이끄는 표현이지만 ‘已矣乎’는 주제의 마무리로 ‘歸去來兮’와 호응하는 亂辭로서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 즉 「歸去來兮辭」에서 양자는 ‘歸去來兮’(서두: 주창)~‘歸去來兮’(중간: 강조)~‘已矣乎’(결미: 마무리)의 호응 형식을 갖는 표현이다.

‘歸去來兮’는 ‘歸’에 의미의 중점이 놓여 상황에 따라 ‘돌아가다’와 ‘돌아오다’의 방향성이 결정되며 ‘已矣乎’는 陶淵明 이전의 ‘끝나다’라는 절망의 의미에서 ‘그만두다’라는 달관의 의미로 변용되어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거나 자신을 위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아울러 이 호응구는 ‘兮’와 ‘乎’로 이루어져 辭

賦 문학에서 읊조리기에 적합한 영탄조를 형성한다.

‘歸去來兮’와 ‘已矣乎’의 唐宋 시가에 대한 영향으로 시에서 쓰일 경우 대개 영탄의 기법은 소멸되고 歸去來, 歸去, 歸來, 已矣 등으로 축약되어 5언이나 7언 구의 일부로 작용한다. 詞의 경우 ‘歸去來兮’는 독립된 구로서의 용례가 많은데 그 이유는 詞牌 형식의 제약이 있어도 3음절(歸去來) 또는 4음절(歸去來兮) 위치에 填詞가 가능했고 시와는 달리 형식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이다. 반면 ‘已矣乎’는 단독의 사용례가 많지 않은데 辭와 달리 시나 詞에서는 亂辭를 상용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歸去來兮’와 ‘已矣乎’의 호응구는 시나 詞의 영역으로 확대되어 원용되었으며 한 구 안에서 동시에 호응하는 용례도 보인다.

和陶辭의 경우 「歸去來兮辭」에 和韻하여 창작을 하되 ‘歸去來兮’와 ‘已矣乎’ 부분은 그대로 습용하여 호응 관계를 유지하는 형식이 확립되었다. 이는 「歸去來兮辭」에서 양자를 주제 관련 핵심 표현으로 인식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蘇軾의 주장 이후 하나의 창작 분야로서 후대에 영향을 미쳤다.

‘歸去來兮’와 ‘已矣乎’에 의한 창작 영역의 확대는 다른 어떤 문학 언어 못지않게 영향력이 컸고 지속적이었다. 그 영향은 陶淵明 이후 역대로 중국에서는 물론이고 한국 등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었다. 하나의 작품의 영향적 측면을 살펴볼 때 이러한 현상은 陶淵明 문학이 가지는 높은 예술적 가치와 뛰어난 심미성을 대변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 김학주 역, 『陶淵明』, 서울: 명문당, 2013.
- 노태준 역, 『新譯 古文眞寶』, 서울: 흥신문화사, 1982.
- 이장우 등역, 『고문진보 후집』, 서울: 을유문화사, 2003.
- [先秦] 朱熹 注, 『詩集傳』,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 [先秦] 屈原 著, 洪興祖 補注,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1983.
- [先秦] 屈原 著, 蔣驥 注, 『山帶閣注楚辭』, 臺北: 廣文書局, 1971.
- [先秦] 朱熹 集注, 『四書章句集注』, 北京: 中華書局, 1983.
- [漢] 劉向 編, 高誘 注, 『戰國策』, 新化: 三味書室, 1902.
- [漢] 司馬遷 著, 『史記』, 北京: 中華書局, 1982.
- [晉] 陶淵明 著, 龔斌 校箋, 『陶淵明集校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6.
- [晉] 陶淵明 著, 劉繼才 譯釋, 『陶淵明詩文譯釋』 哈爾濱: 黑龍江人民出版社, 1986.
- [晉] 陶淵明 著, 逯欽立 校注, 『陶淵明集』, 北京: 中華書局, 1979.
- [晉] 陶淵明 著, 孫鈞錫 校注, 『陶淵明集校注』,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86.
- [晉] 陶淵明 著, 陶澍 集注, 『陶靖節集注』, 臺北: 世界書局, 1974.
- [晉] 陶淵明 著, 王瑤 注, 『陶淵明集』,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56.
- [晉] 陶淵明 著, 汪榕培 英譯, 熊治祁 今譯, 『陶淵明集』, 長沙: 湖南人民出版社, 2003.
- [晉] 陶淵明 著, 魏正申 譯注, 『陶淵明集譯注』, 北京: 文津出版社, 1994.
- [梁] 蕭統 編, 『文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 逯欽立 輯校, 『先秦漢魏晉南北朝詩』, 北京: 中華書局, 1983.
- [唐] 岑參 著, 陳鐵民, 侯忠義 校注, 『岑參集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 [唐] 杜甫 著, [清] 錢謙益 箋注, 『錢注杜詩』,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79.
- [唐] 李白 著, [清] 王琦 注, 『李太白全集』, 北京: 中華書局, 1977.
- [唐] 駱賓王 著, [清] 陳熙晉 箋注, 『駱臨海集箋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唐] 虞世南 編, 陳禹謨 校刊, 『北堂書鈔』, 陳禹謨 校刊本.
- [宋] 郭祥正 著, 『青山集』, 欽定四庫全書本.
- [宋] 柳永 著, 薛瑞生 校註, 『樂章集校註』, 中華書局, 1994.
- [宋] 陸游 著, 錢仲聯 校注, 『劍南詩稿校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宋] 蘇軾 著, [清] 馮應榴 輯注, 黃任軻 朱懷春 校點 『蘇軾詩集合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 [宋] 蘇軾 著, 鄒同慶, 王宗堂 校註, 『蘇軾詞編年校註』, 北京: 中華書局, 2002.
- [宋] 辛棄疾 著, 鄧廣銘 箋注, 『稼軒詞編年箋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3.
- [宋] 張耒 著, 李逸安 等 點校, 『張耒集』, 北京: 中華書局, 1990.
- 陳抗 等 編著, 『全唐詩索引』 王勃·楊炯·盧照隣·駱賓王 卷(1992) / 孟浩然 卷(1992) / 王維 卷(1992) / 高適 卷(1994) / 岑參 卷(1992) / 韓愈 卷(1992) / 劉禹錫 卷(1992) / 李賀 卷(1992) / 杜牧 卷(1992) / 李商隱 卷(1991), 北京: 中華書局.
- 丁永忠, 『陶詩佛音辨』, 成都: 四川大學出版社, 1997.
- 洪業 等 編纂, 『杜詩引得』,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 平岡武夫 主編, 『李白歌詩索引』,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 錢鍾書, 『管錐編』, 北京: 中華書局, 1986.
- 唐圭璋 編, 『全宋詞』, 北京: 中華書局, 1965.
- 周策縱, 「說“來”與“歸去來”」, 香港中國語文學會編, 『王力先生紀念論文集』(中文分冊), 香港: 三聯書店香港分店, 1987.
- 松原郎, 「中國古典詩の 音數律一對偶性と人為性一」, 『アジア民族文化研究』 7 卷, 2008.

Abstract

Formation of *GuiQuLaiXiCi* (「歸去來兮辭」) 's Subject-Related Echoing Words and Its Influence on Poetry during the Tang and Song Dynasties

Lee, Hyun Woo

This study examined echoing words related to the theme of *GuiQuLaiXiCi* (「歸去來兮辭」) and its influence on poetry during the Tang and Song Dynasties.

In *GuiQuLaiXiCi* (「歸去來兮辭」), “GuiQuLaiXi(歸去來兮)” and “YiYiHu(已矣乎)”, which are echoing words of the expression of the theme, were formed by incorporating prose such as *LunYu* (『論語』) and verses such as *ChuCi* (『楚辭』) from the pre-Qin period. Of them, “GuiQuLaiXi” is an expression that implies the theme, while “Yi Yi Hu” corresponds to ‘Luan Ci(亂辭)’ and plays a role in ending, and the two are in a relationship of responses at the beginning and ending of each other. In terms of interpretation, “GuiQuLaiXi” focuses on “going back,” and “YiYiHu” originally meant “ending,” which indicates despair, but was transformed into the meaning of “quitting.”

The range of use of the echoing words “GuiQuLaiXi” and “YiYiHu” was gradually expanded as a literary language after Tao Yuanming(陶淵明). In the Tang and Song Dynasties, this influence led to the expansion of echoing words to include ‘Shi(詩)’ and ‘Ci(詞)’ in addition to ‘Ci(辭)’, and the ethos for the prosperity of ‘HeTaoCi(和陶辭; composing a rhyme in Tao’s poetry)’ was formed by Su Shi(蘇軾). In particular, in the works of later generations after Tao Yuanming, the aspect of formalization of the expressions of echoing words like fixed frames was shown as they were used together or one of them was used alone. A tendency is seen where not only were echoing words used frequently, mainly when the writer could not achieve his/her goal in public office or was in an unfortunate situation, but were also habitually quoted in other situations.

Key words : Tao Yuanming(陶淵明), *GuiQuLaiXiCi* (「歸去來兮辭」), GuiQuLaiXi(歸去來兮), YiYiHu

(已矣乎), Echoing Words, Poetry of the Tang and Song Dynasties, Aspects of Influence

투 고 일: 2024. 1. 10. / 심 사 일: 2024. 1. 15. ~ 2024. 2. 15. / 게재확정일: 2024. 2. 20.

